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7호 HYUNBULNEWS.COM 2025년 1월 29일(음력 1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상생과 화합의 한 해 만듭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2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2569(2025)년 을사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한국불교 대표 종단 지도자들은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발원했다. 사진은 신년하례법회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관련기사 3면〉 사진=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선명상 국민운동 확대하겠다"

1월 23일 신년기자회견 개최
국제선명상대회, 연등회 연계
4~5월을 '마음 평화의 달'로
1원 체제로 전환…전법 강화
"전법, 직접 챙기겠다" 강조
"현 사태, 수처작주 되새겨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5년 한 해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발원했다. 한국불교 지혜를 담은 선명상을 국민운동으로 확대, 마음 평안으로 안내하는 원년의 해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으로 한국불교 중흥과 함께 승단의 위의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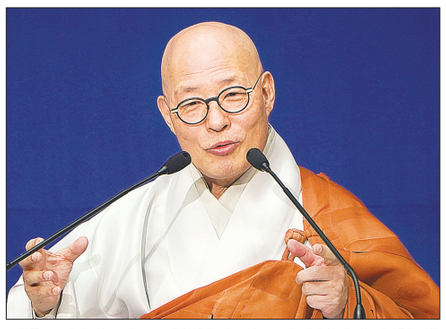
조계종은 1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2569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치유' '평안' '화합'을 기치로 올 한 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대자비와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불기 2569년 종책과제로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조직개편을 통한 역동적 불교 구현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전통문화관련 국가제도 개선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 △종무행정 역량 강화를 꼽았다.

조계종은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를 위해 선명상 대중화에 나선다. 2024년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선명상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제고의 초석을 마련한 조계종은 '2025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의 수행문화 계승 및 정체성 함양과 우리나라의 명상 인프라를 총결집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주요 사찰 인프라와 지역의 연계성을 활용, 선명상 콘텐츠 보급과 확산을 추진하고 선명상의 대중적 보급을 위해 지도법사와 지도사 양성도 나선다. 세계인에게 선명상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국내외 명상전문가를 초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중앙선명상센터를 건립, 선명상 중앙본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인의 정신혁명이 될 제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1700년 지혜를 담은 간화선 수행 전통에 기반해 현대인들에 맞게 수행법을 대중화할 것"이라며 "선명상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K-문화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을 통한 역동적인 불교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30년 만에 조직개편을 결정하고 올해 4월부터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통합을 시행한다. '젊은 불교' '힘한 불교'의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현대인들이 주목하는 뉴미디어를 통한 포교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홍보실을 신설, 포교의 방편을 다양화한다.


진우 스님이 1월 21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내영 기자

"앞으로 전법은 총무원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3원으로 분산돼 역동성이 떨어지는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직 통합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시행됨에 따라 신도들의 신심을 증장하고 승가교육체계를 현대화해 역동적인 불교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 중흥을 서원하며 승단의 위의를 세울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탈종교화 사회와 연결된 출가자 감소 문제는 한국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며 "출가와 수행이 곧 나와 세상을 위한 길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단의 위의는 곧 수행의 가치"라며 올봄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과 함께하는 '담선대법회'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승려복지의 목적기금 확보를 통해 질적 도약을 체계화할 것도 약속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희망의 봄'을 염원했다. 4~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화의 달로 만들어 종단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조한 스님은 "불교박람회, 국제선명상대회, 연등회 등을 통해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안을 전할 것"이라며 "세계인들에게는 K-문화의 근간이 되는 인연과 인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적 심성 등 한국불교의 정신을 소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지구촌은 전쟁의 고통과 기후 위기, 환경 파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흰 눈이 녹으면 반드시 봄이 온다"면서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지혜와 의지로 스스로 주인공이 돼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한국불교는 지난 겨울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따뜻한 봄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불교계 현황뿐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벌어진 서울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반대 시위대의 서울지법 난입에 대해 진우 스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방법은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인간이 1차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양심이다. 양심보다 욕심이 과해지면 과격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만큼, 좀 더 이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생명나눔 불사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나눔 · 현대불교신문 MOU
1월 21일, 생명나눔 중앙본부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2025년을 맞아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기획을 새롭게 시작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 발행인 혜도 스님)은 1월 21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본부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공동기획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희망'을 키워드로 한 이번 기획은 생명나눔 실천의 역사와 비전을 망라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비나눔 실천 사업에 대해 담아낼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이번 공동기획을 통해 생명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길 기대했다. 일면 대종사는 "지난해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30주년을 맞이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두 기관이 생명살림 문화 전파를 위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현대불교신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더욱 많은 이들이 생명살림의 기쁨을 알고 자비나눔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도 스님은 "두 기관이 함께 30살 청년이 된 이후 새롭게 맺는 업무협약이라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진다"며 "현대불교신문은 모든 생명의 마음을 일깨워 살린다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모토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생명살림, 자비나눔의 뜻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앞으로 현대불교신문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많은 사업과 나눔 활동을 적극 보도해 후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 기부문화가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기자


(사진 왼쪽부터)본지 발행인 혜도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 한명우 본지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 연휴 관계로 다음 주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인등 위패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